

우리 동네는 주식 열공 중

“주식 투자에 막 입문한 ‘주린이’(주식+어린이)입니다. 종목을 추천하거나 좋은 정보 공유하며 함께 공부할 분 찾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는 주식 열풍 속에서 “아는 만큼 투자하자”는 주식 공부방이 온라인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관심사가 비슷한 투자자끼리 만나는 주식 친구, 이른바 ‘스톡 메이트’(Stock Mate)라는 말도 생겨났다.

친척, 직장 동료끼리 삼삼오오 모여 주식 정보를 나누는 기존과 달리 ‘주식 공부방’ 형태는 다양하다.

20일 현재 카카오톡에 ‘광주 주식방’ ‘광주 재테크’ 등을 검색할 때 나오는 오픈채팅방은 수십 개에 달한다.

방마다 회원 수는 10명 안팎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기도 한다. 자신이 주식 고수임을 증명하기 위해 ‘빨간색’으로 도배한 자신의 수익률 화면을

혁신도시·아파트단지·대학가 온라인 ‘주식 공부방’ 활발 회원수 10~100여명 정보 나눠 중고거래 앱서도 ‘주린이’ 소문 떠도는 투자 정보 낭패볼 수도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주의

증거 자료로 내는 모습도 보였다.

방 주인인 ‘방장’은 ‘해시태크’(#) 문구를 달아 주식방 특징을 표현한다. 30~40대 등 연령대나 남녀 성별을 특정하면서 가입 제한을 두거나, 서로 약속을 하면 존댓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반말방’도 있다.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나누는 ‘코인방’도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암암리에 떠도는 투자 정보지를 공유하는가 하면 증권사나 유용한 유튜브 강의, 참고 도서를 추천하기도 한다. 지역에 소재한 상장법인 이름을 따서 특정 종목만을 연구하는 주식방도 생겨났다.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앱 ‘당근마켓’은 이웃끼리 주식을 함께 공부하는 만남의 장으로 거듭났다.

자신의 동네 위치(GPS) 반경 4~6km 이용자끼리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진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주식 정보를 나누

는 공간은 앱에 마련된 ‘동네생활’ 게시판이다. 초기에는 동네 맛집을 알리고 분실물 안내, 편의 시설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었지만, 최근에는 투자 모임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모바일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눈 뒤 카카오톡 주식방을 만들고, ‘정보’를 갖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공기업 직원들의 가족들이 주식방을 만드는 추세이며, 주요 대학이 위치한 북구 용봉동이나 동구 서석동은 20대 수요가 많다.

코로나19 여파로 직접 대면할 수 없을 때는 다자간 통화를 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기도 한다. 아이폰 이용자인데서 초대장을 받아야 주식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폐쇄성이 짙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

이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이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라며 “이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최소 000% 수익률 보장’, ‘손실 무조건 보전’ 등의 불법 과장광고를 담은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리딩방 운영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려면 금융원이 운영하는 관련 누리집(fine.fss.or.k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역 주식 투자자는 광주 24만4839명·전남 20만6236명 등 45만 1075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9229명(44.6%) 급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일임형 ISA 수익률 ‘은행권 1위’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평균 수익률이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이 1위에 오른 부문은 ISA 모델포트폴리오 가운데 고위험·중위험 평균 수익률이다.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지난 2월 말 기준 일임형 ISA 수익률을 보면, 광주은행의 고위험 모델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은 51.08%이다.

중위험 평균 수익률은 33.31%, 저위험은 14.72%를 기록했다. 고위험과 중위험 상품은 수익률 1위, 저위험은 2위에 올랐다.

광주은행은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면서 국내 시장보다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의 분산투자 전략·성장에 대한 장기적 투자 전략을 취해왔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자산이 편입 후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점이 이번 성과에 기여한 것으로 광주은행 측은 풀이했다.

일임형 ISA는 하나의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세계혜택(비과세) 상품이다. 지난해 관련 제도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격조건이



대폭 완화돼 소득 없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장진섭 WM(Wealth Management·자산 관리)사업부장은 “세계 경기의 회복에 따른 글로벌 분산투자 전략과 성장성 높은 산업군의 편입 비중을 늘리고, 지속적인 위험(리스크) 관리를 한 결과 수익률이 나타났다”며 “지난해 말부터 채권 금리 관련 리스크 축소를 위해 단기채권으로 조율한 점도 수익률 제고에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타이어, 차량 관리 서비스 플랫폼 ‘유레카’ 입점

금호타이어는 에스오일과 업무협약을 맺고 차량 관리 서비스 플랫폼 ‘유레카’에 입점해 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유레카는 에스오일과 KT그룹의 스마트로가 협력 개발한 차량관리 서비스 플랫폼으로 오는 7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고객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레카를 이용해 비대면 주유 주문과 주차, 세차, 타이어 관리 등 다양한 차량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엽 금호타이어 영업마케팅본부 부사장은 “금호타이어가 단독으로 에스오일의 유레카에 입점하게 되면서 새로운 판매 채널을 확보하는 등 고객 선택권을 넓히게 됐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혁신 서비스 및 기술과의 제휴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구를 살리는 옷 2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6층 ‘디스커버리’ 매장에서 ‘지구의 날’(22일)을 앞두고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반팔 상의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3,220.70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20일 코스피가 증가 기준 3220선을 처음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1.86포인트(0.68%) 오른 3220.70으로 마감하며 지난 1월25일(3208.99) 기록한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3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지수는 7일 연속 올랐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도 2246조를 나타내며 지난 1월25일보다 34조원이 증가했다.

이날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는 지난달부터 나타난 외국인 매수세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분기까지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은 지난달 말부터 순매수로 돌아섰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3조2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또 이날 하루에만 대형주는 1090억원어치를 순매수한 데 비해 중소형주는 약 2배인 2000억원 이상을 사들였다.

지난달 10일 1142.00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은 1112.3원까지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2.42포인트(0.24%) 상승한 1031.88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20.70 (+21.86)
↑ 코스닥	1031.88 (+2.42)
↑ 금리(국고채 3년)	1.134 (+0.005)
↓ 환율(USD)	1112.30 (-4.90)

볼타리 : 볼타리는 그 안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꾸어갑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어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볼타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사 시설물 안전 관리는 물론, 공익적 기술 지원으로 국민안전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해대비 능력 향상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재해예측시스템' 운영으로 능동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안전관리컨설팅', '안전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깨끗한 농어촌 우수 공급과 생태계 보전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농어촌의 고유 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